

SK 텔레콤, 2019 년 3 분기 실적발표

- 매출 4 조 5,612 억원, 영업이익 3,021 억원, 순이익 2,744 억원 기록
- 무선 매출, 8 분기만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 5G 투자 비용 늘어 이익 감소
-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이 실적 견인... New ICT 기업으로 빠르게 변모
- “전방위 협력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New ICT 기업으로 거듭날 것”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컨퍼런스콜은 금일 15 시 예정이며, 아래 URL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

(국문) 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19Q3_kr.php

(영문) 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19Q3_en.php

[2019. 10. 31]

SK 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 년 3 분기 매출 4 조 5,612 억원, 영업이익 3,021 억원, 순이익 2,744 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1 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연결 기준 매출은 9.0% 늘었고, 영업이익은 0.7% 감소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5.9% 상승했다. 특히 무선(이동전화) 매출은 전년보다 0.1% 증가해 8 분기만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전환했다.

■ 5G 가입 확대로 무선 매출 전년,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 5G 투자 늘어 이익 ↓

무선 매출은 5G 가입자 확대로 2 조 4,864 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0.1%,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SK 텔레콤 5G 가입자는 9 월말 기준 154 만명을 넘어섰다.

SK 텔레콤은 고객가치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3 분기에도 1.0% 의 낮은 해지율을 달성했으며, 2019 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22 년 연속 이동통신 부문 1 위에 올랐다.

다만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5G 마케팅비, 네트워크 투자비 증가로 인해 2,528 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8.6%, 전분기 대비 8.2% 감소한 수치다.

■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이 성장 동력... New ICT 기업으로 거듭나

SK 텔레콤의 3 분기 연결 매출 가운데 非 무선(이동전화) 매출 비중은 45%를 넘어섰다. 이는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며, SK 텔레콤이 이동통신사를 넘어 New ICT 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디어 사업은 IPTV 매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종합 미디어 서비스'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3 분기 IPTV 매출은 3,337 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 전분기 대비 3.6% 상승했다.

SK 텔레콤은 'oksusu'와 방송 3 사의 'POOQ'을 통합해 지난 9 월 새 OTT 서비스 '웨이브(wave)'를 출범했으며, 2023 년까지 유료가입자 500 만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며 정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보안 사업 매출은 ADT 캡스와 SK 인포섹의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3.0% 증가한 3,060 억원을 기록했다. ADT 캡스와 SK 인포섹은 다양한 신규 IoT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며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커머스 사업 매출은 11 번가의 수익성 중심 경영과 SK 스토아의 매출 증가로 인해 1,885 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15 억원으로 3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SK 텔레콤은 이처럼 New ICT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9 월 국내 기업 가운데 최장기간(12 년)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 지수'에 편입돼 미래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New ICT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카카오와 3 천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사는 통신, 커머스, 디지털콘텐츠, 미래 ICT 4 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윤풍영 SK 텔레콤 코퍼레이트센터장은 "최근 카카오와 협력을 발표했듯 전방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New ICT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